

제시문 <가>, <나>, <다>는 죽음에 대해 서로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세 제시문은 먼저 서술대상의 죽음에 대한 인지 여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나>에서 관찰된 고릴라들은 죽음이라는 현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고릴라 무리의 젊은 수컷은 죽은 마체사를 무리 앞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과시적으로 폭행한다. 나머지 고릴라들은 죽은 고릴라를 건드리고 살펴본다. 이들은 죽은이로부터 반응을 이끌어내려 노력한다. 그러한 고릴라들의 행위는 죽음이라는 불가해의 상황 앞에서 보이는 집단적 의례이다. 그들에게 생명 반응의 중지라는 죽음의 인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1. 여기까지 (나)에서 고릴라들이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주장하고 근거서술을 해주셨는데, 과시적으로 폭행하고, 살펴보는 행위들, 집단적 의례들이 왜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론으로 연결되는지 논리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물론, 제시문에 기반한 서술이긴 하지만 논리를 연결지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한편, <가>와 <다>는 공통적으로 인간을 동물과 구별되는 '사고'라는 이성적 능력을 통해 죽음을 인지하는 특수한 존재로 서술한다.

그러나 양자는 인간이 죽음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인식에 대한 견해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가>의 인간은 죽음을 삶의 과정에 포함된 현상으로 인식한다. <가>에 따르면 인간은 죽음의 공포라는 삶의 본능을 거스르는 특수한 존재다. 인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인간은 죽음이 삶의 연장이며, 죽음 이후에도 인간은 존재한다고 믿는다.

2. 근거 서술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간은 특수한 존재다. 인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이 삶의 연장이며 죽음 후에도 인간은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 부분들은 문장의 나열일 뿐, 이 문장들을 통해 왜 인간이 죽음을 끝이 아니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서술이 되지 못합니다.

3. 또한 죽음 이후에도 인간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부분은 제시문의 내용과 어긋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은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특수한 삶의 양식을 실천한다. 이는 '매장'이라는 의례적 행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인간에게 죽음은 혐오나 기피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은 죽은이들과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자 한다. 오히려 인간들은 죽은 자들을 화려한 유물과 함께 장례를 지내고, 힘들여 건설한 무덤에 매장한다. 이는 지인의 죽음이라는 상황을 담담히 마주하며, 죽은이들을 자신들 곁에 영구히 보존하려는 것이다.

반면, <다>의 인간은 죽음을 삶의 과정으로 부터 단절된 현상으로 인식한다. <다>에 따르면 인간은 죽음의 공포에 종속된 존재다. 인간에게 죽음은 끝이다. 인간에게 죽음은 삶으로 부터 유리되는 과정이다. 그 이후 인간 존재는 원자로 분해되어 사라질 뿐이다. 따라서 인간은 삶에 집착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심지어 인간은 죽음과 관련된 것들을 기피하기까지 한다. 죽은 자는 부패하여, 악취를 풍기고, 추악해진다. 이런 모습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상기시킨다.

4. 여기서도 근거 서술이 굉장히 난잡합니다. “죽음 이후의 인간은 부패뿐이며, 인간에게 부패는 기피의 대상이기 때문에 죽음은 기피의 대상이 된다”라고 정리하면 되는 걸 굉장히 난잡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중복 서술도 일어나구요.

인간은 죽은자들의 두려운 모습을 피하기 위해 그들을 매장한다. 이들에게 매장은 예식의 아니다.이들에게 매장이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기피의 대상을 산자들의 삶의 영역으로부터 치워버리는 것이다. 이는 죽음을 마주한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오직 살아있음에 집착함으로써 죽음을 의식적으로 기피하려는 것이다.

(1200자)

총평 - 논리적 서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굵직한 문제들만 지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답안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근거 서술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답안입니다.

답안 작성 의도:

1. 비교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인지와 인식을 다른 개념으로 써봤습니다.

인지는 죽음이라는 현상을 아는가 모르는가 라는 '지각'의 수준이라면

인식은 '철학의 인식론'에서 말하는 인식으로, 인간 지성이 세계(대상,타자)를 파악하는 지향성을 나타낸다.

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주관적 인식'이라고 한 것은 죽음이라는 현상의 파악이 (가)와 (다)에서 서로 상반되게 나오므로, 객관적이라기 보다 주관적이고

본문의 내용에서도 인간의 믿음(죽음 이후에 인간이 존재한다는)이나 감정(두려움)에 근거하여 죽음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므로 굳이 주관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문제는 이보다 근거 서술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아마 인지와 인식을 구분하라는 의도로 문제를 출제하진 않았으니 답안을 작성하실 때 이를 구분하셔서 서술할 필요까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각 제시문을 세 문단으로 나눠서 각각 써주었는데, 서술 순서를 인식, 인지 -> 이유 -> 결과 -> 매장(예식,장례) 랄까요. 나름 대조적으로 읽힐 수 있도록 썼는데.. 이렇게 쓰면 자동으로 비교가 되는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내일 합격자 답안등을 참고해서 어떻게 '비교' 답안을 작성하면 되는지 알아볼 생각입니다.)

- 대칭적으로 좋은 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서술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아 이러한 노력이 좀 묻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3. 큰 틀에서는 나 vs 가,다 이지만 '집단적 의례' 라는 부분 기준을 잡아서 의례가 있는가(가나) vs 없는가(다) 를 표현해주려고 해봤습니다. 제시문에 있길래 했는데, 타당한지는 모르겠네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에서도 매장을 하거든요.

4. 문장쓰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나름 논리적으로 연결되게 쓴다고 쓴건데... 중복 서술로 처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네요.)

- 우선선발 커트라인에 간당간당하게 걸릴 수 있는 답안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